담배, 농약·살충제 함유량 공개!

산자부, 측정법 KS규격 제정 추진 … 7조원 담배시장 타격 우려

이르면 7월 이후 니코틴과 타르 뿐만 아니라 담배에 포함된 맹독성 농약 성분의 함유량도 측정·공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6월8일 식물의 성장조절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라자이드계 농약과 살충제인 카바메이트계 농약 등 맹독성 농약 및 살충제 성분의 담배 내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KS규격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드라자이드계 농약은 접촉 시 피부와 호흡계에 자극성이 있고 구토, 설사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인체의 신경전달계에 영향을 미쳐 심하면 실명, 폐암,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약 및 살충제의 담배 내 함유량 측정방법이 KS규격으로 제정되면 시민단체 등 제 3의 기관이 담배 제품별 농약 함유량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담배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맹독성 유독물질 측정방법의 KS규격화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국산 담배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흡연인구는 13억명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는 120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흡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국내 담배 시장규모는 978억개피로 7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산 담배가 5조4000억원, 외국산은 1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